

최양락 돌아온 개그 콤비 이봉원



“올해 ‘(아)저씨 시대’ 마음껏 웃겨 드리죠”

“지난해에는 ‘줌마시대’였다면 올해는 ‘저씨시대’가 될 겁니다. 아저씨들이 부활할 겁니다.”

올들어 연일 인터넷 검색어 상위를 휩쓸고 있는 왕년의 인기 개그 콤비 최양락(47)-이봉원(46)은 기축년 새해의 각오를 이렇게 밝혔다.

사실 이들은 ‘왕년의’ 혹은 ‘추억의’라는 수식어를 싫어한다. 잊혀지고 싶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잊어버리고 기억하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대중의 몫. 지금 대중은 두 사람을 두고 ‘왕의 귀환’이라는 표현을 쓰며 복귀를 반기고 있다.

“‘왕의 귀환’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어른들의 귀환’이지. 그동안 TV 프로그램의 주도권을 잡고 있던 아이들이 게임과 인터넷 등으로 빠져나가면서 어른들이 ‘드디어 내가 잡았네’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반기는 거구요.”

두 사람은 요즘의 반응이 고맙고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좀 황당하기도 하다. 은퇴한 적도 없고 나름대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었기 때문.

최양락은 수년째 MBC표준FM ‘최양락의 재미있는 라디오’를 진행하며 퇴근시간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고, 케이블채널에서도 여러 프로그램의 MC를 맡아왔다. 또 이봉원은 SBS라디오FM(103.5MHz)에서 ‘이봉원 박미선의 우리집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고, 그동안 예능 프로그램에 종종 얼굴을 비쳤다.

“그동안은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이 좀 추해지는 것도 같고 적응도 잘 못 하겠어서 망설여졌어요. 그런데 15살인 아들 때문에 결심했습니다. ‘아빠, 내 친구들은 아빠를 아무도 몰라’ ‘내 친구들은 퇴근하며 라디오 듣지 않거든?’ 우리 선생님만 아빠 알아 이렇게 말하는 아들의 말을 처음에는 무시했는데 자주 반복해 듣다보니 안 되겠다더라고요.” (웃음, 최양락)

두 사람은 ‘개그맨’이 ‘코미디언’이라는 용어를 넘어서며 대세가 되기 전 마지막 세대다. 콩트가 인기를 끌던 시절 정상의 인기를 누렸고, 예능프로그램 MC로도 활약했지만 어느 순간 밀려났다.

“우리는 늘 웃겼어요. 그런데 어느날 연출자들이 ‘그게 웃긴다고 생각하세요? 공부 좀 하세요’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못 봤던 것 같아요. 마냥 콩트가 인기를 끌 것이라 생각했던 거죠. 우리는 콩트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일부 직업의식이 없는 애들이 ‘날탕’으로 하면서 같이 도매금으로 콩트가 쇠퇴해간 것 같아요.”

사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어느 순간부터 ‘옛날에는 인기 있었다’는 말을 듣기 시작했는데 무척 섭섭하더라고요. 이렇다가는 정말 추억의 인물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긴장감이 들더군요. 아들이 ‘놀러와’에 나온 노홍철을 보며 부러워하는 것을 보고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노홍철이 그날 별로 말도 안했는데 그냥 나와 있다는 자체를 부

은퇴한 적도 없는데 추억의 인물이 됐죠

노홍철 부러워하는 아들 보고 도전 결심

러워하더라고요.”(최양락) 지상파 TV에 복귀한 이들의 개그 스타일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유행이 돌고, 어른들이 TV에 귀환한 덕분인지 예전 모습과 별반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웃음을 주고 있다.

“알마전까지만 해도 헬스클럽을 너무 편하게 다녔는데 요즘에는 방학한 초등학생 애들이 저를 알아보는 통에 신경을 쓰게 됐어요. 애들이 ‘아저씨 이름 이봉원이죠?’ 이러는 거예요. 하하.”(이봉원)

“아들의 반 친구들이 저를 알아보기만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아침만’에 출연했는데 MC까지 맡게 됐어요.(웃음) 이 기회로 젊고 어린 친구들도 어른들과 같이 우리를 보며 즐거움을 느꼈으면 좋겠어요.”(최양락) /연말뉴스



최양락(왼쪽)과 이봉원

1 BOX OFFICE

순위	제목	전국관객	전국누계
1	적벽대전 2: 최후의 결전	42만5천478	53만1천803
2	작전명 발키리	29만3천692	36만1797
3	유감스러운 도시	24만2천830	29만7천362
4	과속스캔들	15만6천442	67만6천559
5	쌍화점	8만3천85	330만9천778
6	체인질링	5만3천328	6만3천766
7	마다가스카	5만959	93만8천758
8	베드타임 스토리	3만9천759	4만6천762
9	트랜스포터-리스트 미션	1만8천364	85만5천13
10	워닝소리	6천472	1만9천78

(단위:명) (자료제공:영화진흥위원회)

순위	제목	방송국	시청률
1	아내의 유혹	SBS	37.7
2	집으로 가는 길	KBS1	20.8
3	KBS 뉴스9	KBS1	17.9
4	황금어장	MBC	17.0
5	돌아온 일지매	MBC	16.6
6	하얀 거짓말	MBC	14.9
7	SBS 8시 뉴스	SBS	14.9
8	한밤의 TV연예	SBS	14.5
9	환경스페셜	KBS1	12.6
10	순결한 당신	SBS	12.3

(단위:%) (자료제공:TNS리서치)

순위	제목	장르
1	신기전	액션
2	헬보이 2:골드아이	SF
3	좋은놈 나쁜놈 이상한놈	액션
4	적벽대전: 거대한 전쟁의 시작	액션
5	미이라 3: 황제의 무덤	판타지
6	이글 아이	액션
7	현혹	액션
8	올학교이티	코미디
9	다크 나이트	액션
10	달미미아	뮤지컬

(자료제공:오피와 버금)

순위	제목	가수
1	지	소녀시대
2	러브	케이월
3	스트롱 베이비	빅뱅 스티리
4	총 맞은 것처럼	백지영
5	프리티 걸	카라
6	이젠 남이야	V.O.S 김경록
7	붉은 노을	빅뱅
8	유아맨	SS501
9	매력쟁이	린
10	비와 당신	림블피시

(자료제공:멜론)

제18279호 2판
2009년 1월 31일 토요일

光州日報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501-711)
회장 許宰皓
사장 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편집국장 曹庚完
대표전화 2200-551-222-8111
(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홈페이지
편집국안내
대표부 222-4918 (팩스 222-8005)
편집부 2200-629 광고이메일
정재부 2200-616 2200-521
경제부 2200-617 (팩스 227-9500)
사회1부 2200-618 디자인 2200-536
사회2부 222-4267 문화홍보국 2200-541
사회3부 2200-619 (팩스 222-0195)
독자서비스국 (팩스 227-0118)
문화생활부 2200-626 2200-551
어문매체부 2200-628 (팩스 227-9500)
체육팀 2200-627 서울지사
사진부 2200-690 02-773-9331
조서부 2200-570 (팩스 02-773-9335)
구독료 월 10,000원 1부 400원
1952년 4월 20일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1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무안 - 장사(장가계) 무안 공항 직항!!!

* 공항 주차장 무료이용
* 국내 최대의 안전도를 주는 **광주MBC문화항공** 상합니다 www.kpmc.or.kr
* **가축의 때까지 상품과 차원이 다릅니다**

무안 - 장사(장가계) 직항!

한국항공
 한국항공
 한국항공

무안 - 상해(방콕) 직항!

한국항공
 한국항공
 한국항공

중국東方航空 光州MBC문화항공 光州/전남 북 유령여행사 ☎ 문의 062-226-6070